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행동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누구나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조금 서툰 것 뿐입니다.

큰마음 먹고 우선 한 걸음 나가봅시다. 장수 사회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자기 활성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삶의 천리교

좋은 일을 하면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어떤 통계에 따르면,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행동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산뜻해집니다. 누구나 원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기가 조금 서툰 것 뿐입니다.

큰마음 먹고 우선 한 걸음 나가봅시다. 장수 사회에서 면역력을 높이고 자기 활성화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즐거운 삶의 천리교

키우면 자란다. 키우는 것은 정성,
정성은 수리, 수리는 거름질.

(계시록·지도말씀 = 1890.6.24)



어린이든 어른이든 키우면
자라고 키우지 않으면 자라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을 키우려면 부모(키우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며,

또 자식의 성장에 맞추어 정성을 들이면서 키우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운이 없을 때는 격려의 말을 걸어주고, 또 아이가 마음이 조금해 졌다면 충고하기도 합니다. 말은 거름입니다. 즉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 하나가 중요한데, 나무에 줄 거름처럼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키우면 자란다. 키우는 것은 정성,
정성은 수리, 수리는 거름질.

(계시록·지도말씀 = 1890.6.24)



어린이든 어른이든 키우면
자라고 키우지 않으면 자라
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
을 키우려면 부모(키우는
사람)의 정성이 필요하며,

또 자식의 성장에 맞추어 정성을 들이면서 키우지 않으면 순수하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운이 없을 때는 격려의 말을 걸어주고, 또 아이가 마음이 조금해 졌다면 충고하기도 합니다. 말은 거름입니다. 즉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 하나가 중요한데, 나무에 줄 거름처럼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